

가스공사, 아프리카 천연가스 추가 확보

한국가스공사(사장 주장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북부해상 4구역 광구에서 6Tcf(1억3000만톤)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2월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광구에서 가스공사가 확보한 가스자원량은 68Tcf(약 15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최소 2개의 평가정 시추작업을 통해 총 75Tcf의 가스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2/12/07>